

자료명	2026년 3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엠바고	6월 30일(화)자 朝刊부터(통신, 인터넷 등은 6/29(월) 12:00부터)
문의처	경제정책팀 강민재 팀장(010-2612-6194, 02-6050-3442), 조혜민 연구원(3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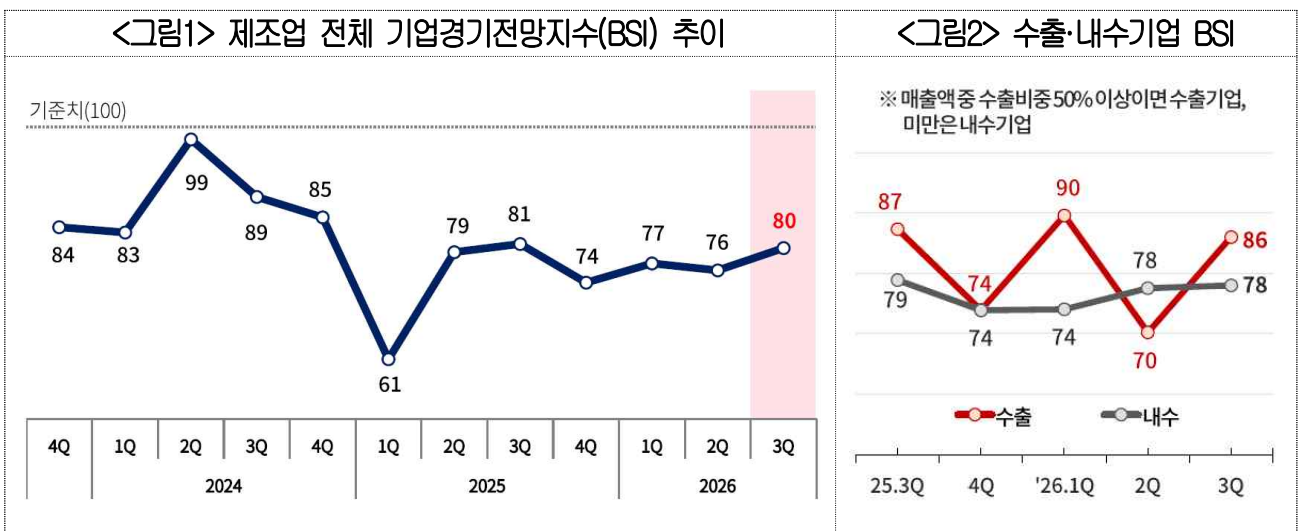
2026년 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BSI) '80'... 전분기 대비 4p ↑

- 전국 제조기업 2,470개사 조사.. 수출기업(70→86) 16p 상승, 내수기업은(78→78) 정체
- 반도체(113) 3분기 연속 '업황 개선 기대'... 화장품(100), 조선(95), 전자·통신(93) 순
- 응답기업 과반, 중동전쟁 여파로 하반기 경영계획 손질... 가격·원부자재·비용 관리에 집중

ICT 산업 호황에 따른 반도체·전자 수출 호조와 중동전쟁 영향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전략 마련 등에 힘입어 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전국 2,470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76) 대비 4p 상승한 ‘80’ 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수출기업 지수가 70에서 86으로 16p 상승했고, 내수기업 지수는 78로 전분기와 동일했다.

BSI가 100을 초과하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반도체(113) 3분기 연속 '업황 개선 기대'... 화장품(100), 조선(95), 전자·통신(93) 순

조사 대상 업종 가운데 반도체가 기준치 100을 넘으며, 3분기 경기가 2분기보다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는 조사 대상 업종 중 가장 높은 113을 기록하며 3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넘었다.

<표1> 반도체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조사 대상 시기		BSI	
2026년	1분기	120	(+22)
	2분기	118	(-2)
	3분기	113	(-5)

*괄호 내는 전분기 대비 증감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화장품(100), 조선(95)이 그 뒤를 이었다. 전자·통신(93)과 전기장비(92)는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인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나란히 상승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서버 구축에 필요한 회로기판, MLC C 등을 포함하는 전자·통신은 조사 대상 업종 중 전분기 대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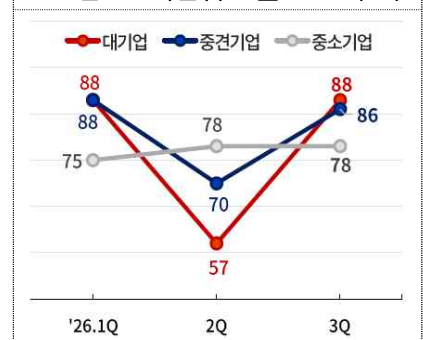
<그림3> 2026년 3분기 업종별 BSI



반면 시멘트·레미콘·유리 등을 포함하는 비금속광물(61)은 장마철 건설 수요 감소로 전분기 대비 18p 하락하며 조사 대상 업종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유·석유화학(64)은 전분기 대비 8p 상승했으나 석유화학 제품의 중국발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크게 위축됐던 대기업(88)과 중견기업(86) 심리는 3분기 들어 이전 수준을 회복한 반면, 중소기업은 전분기와 같은 78에 그쳤다.

<그림4> 기업규모별 BSI 추이



응답기업 과반, 중동전쟁 여파로 하반기 경영계획 손질... 가격·원부자재·비용 관리에 집중


중동전쟁으로 인해 하반기 경영·운영계획에 변동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55.6%가 ‘변동 있음’ 이라고 답했다. ‘변동 없음’ 은 44.4%였다.

*조사 당시(~6/1) 중동전쟁 진행 중. (현재 美-이란 종전 MOU(6/17 체결) 이행 협의 중)

경영 계획을 수정한 기업들은 구체적인 변경사항으로, ‘가격·납품단가’ (59.3%)와 ‘원부자재 조달 규모·방식’ (56.4%), ‘운영비용’ (41.5%) 등을 우선 꼽았다. 이어 ‘생산량·가동률’ (32.1%), ‘신규 투자 규모·시점’ (19.7%) 외에도 ‘환율·원자재 헤지’ (10.6%), ‘정책금융·지원금’ (10.5%), ‘시중금융’ (8.6%), ‘호르무즈 해협 우회’ (7.9%), ‘대체 수출처’ (5.5%)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기타 1.7%>

<그림5> 하반기 경영계획 변동사항



강민재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제조기업 경기전망이 호전되고 있으나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기조와 공급망 불안이 제조업 전반의 경영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며 “정부는 환율 변동성 관리와 원자재 수급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에너지·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참고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2026. 5. 18(월) ~ 2026. 6. 1(월) *휴일제외 10일간

□ 조사 대상 : 전국 10인 이상 제조업체 2,700개사 (응답기업 : 2,470개사)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기반 이메일 및 FAX 조사 병행(지역상의 공동조사)

□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산출방식

$$\bullet \text{ BSI} = \left[\frac{\text{'호전예상'기업수} - \text{'악화예상'기업수}}{\text{응답기업수}} \right] \times 100 + 100$$

• 전국 69개 지역상공회의소를 통해 조사한 결과를 업종별·지역별로 집계하여 단순지수 산출

•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전분기 대비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

□ 응답자 구성(2026.3Q 기준)

• 기업규모 : 대기업(3.5%), 중견기업(15.0%), 중소기업(81.5%)

• 수출비중 : 내수기업(78.8%), 수출기업(21.2%)

*매출액 중 수출비중 50% 이상이면 수출기업, 미만이면 내수기업으로 분류